

# 시조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 전라북도 지역 '시조 문화클러스터' 구축을 중심으로 -

박 영 우 (경기대)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광역적 '시조 문화클러스터'의 실현 방안 |
| 2. '시조 문화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이론적 논의   | 5. 맺음말                    |
| 3. 전라북도 지역의 '시조 문화 클러스터' 구축 방안 |                           |

## 국문초록

익산시는 2017년 가람문학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진안군에서도 가람 이병기의 제자인 시조시인 구름재 박병순 생가 복원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올 안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업들은 가람 이병기를 중심으로 꽃피웠던 시조문학 메카로서의 전라북도의 문화적 자존심을 살리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 하겠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는 상호 지역적 연계성을 통해 새로운 문화콘텐츠 생산 및 지역마케팅 차원에서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그런 차원에서 가람문학관이 건립될 익산을 중심으로 가람 선생이 머물렀던 전주 한옥마을과 양사재(養士齋), 진안의 구름재 박병순 생가와 마이산,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그리고 조선시대 명기(名妓)로서 절창 시조를 남긴 부안의 이매창 관련 유적지들을 연계한 지역 테마 관광 코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도 이제는 문화원형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및 관광과의 컨버전스를 통한 마케팅 차원의 접근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본 논의가 시조문학을 통한 전라북도 지역 마케팅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제어: 시조, 문화콘텐츠, 문화클러스터, 전라북도, 장소마케팅, 익산시, 전주시, 진안군, 부안군

## 1. 머리말

최근 콘텐츠에 대한 상품화와 지속적 발전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문학적 역시 콘텐츠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문화 원형, 문학관 등 소재 개발에 주력했던 기존의 문학 관련 콘텐츠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유, 무형의 문학 관련 자원들을 상품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학과 관련된 콘텐츠 자원들을 관광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다수 문학과 관련된 콘텐츠 원천 소스들은 지역 관광 콘텐츠와 일정 부분 연관되어 개발되어 왔다. 지역 관광은 “지역의 특수성과 관광이라는 자본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대중매체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전파된다.”<sup>1)</sup>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문학과 관련된 콘텐츠 원천 소스<sup>2)</sup>들의 경우, 구체적인 지역과 연관되어 연구

1) 조광익, 「여가와 관광의 철학적 의미」, 『관광학총론』, 한국관광학회, 백산출판사, 2009, 77면.

또는 발견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들은 문인의 문학 세계, 혹은 작품의 배경이 되므로 문학을 향유하는 개인, 단체, 대중적 답사와 관광의 대상이 되어 왔다.<sup>3)</sup>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역 역시 한국 근·현대사에 입적된 문학 문인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의 생가 및 터전이 비교적 잘 복원 및 보존되어 콘텐츠화 가능한 원천소스가 풍부한 지역으로 손꼽을 수 있다. 최근 전라북도 익산시는 2017년 ‘가람문학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같은 시기 진안군에서도 가람 이병기의 제자인 ‘시조시인 구름재 박병순 생가’ 복원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닌 문화적 공통성을 전제로 한 인접지역 간의 유기적 관광문화콘텐츠에 대한 필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이 전라북도에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업들은 가람 이병기를 중심으로 꽃피웠던 시조문학 메카로서의 지역 문화적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행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내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관광 자원들의 유기적 연계에 대한 계획이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관광문화콘텐츠들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는 익산의 가람문학관, 가람 선생이 머물렀던 전주 한옥마을과 양사재(養士齋), 진안의 구름재 박병순 생가와 마이산, 그리고 조선시대 명기(名妓)로서 절창 시조를 남긴 부안의 이매창 관련 유적지 등 문학과 관련된 원천소스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시조 문화 테마 관광’ 벨트의 조성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조 문화클러스터’의 구축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 2) 문학과 관련한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은 작가와 작품이다. 작가의 경우 작가의 탄생이나 활동 지방등과 밀접하게 관계하며 작품의 경우 배경이 되는 지역이 매우 중요한 콘텐츠 원천 소스로 활용된다. 문학관, 문학촌 등의 전시콘텐츠들이 바로 그 결과물들이다.
- 3) 권성훈, 「시조 시인의 생가와 시조 문학관 연구」, 『비평문학』 52, 한국비평학회, 2014, 43면.

## 2. '시조 문화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이론적 논의

'시조 문화클러스터'의 구축을 위해서는 시조를 바탕으로 한 문화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클러스터의 가장 일반적인 개념 정의는 "서로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문화예술의 생산 및 관련 기능의 지리적 집합체"<sup>4)</sup>라 할 수 있다. 기존 문화클러스터 개념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단일 도시의 재생 방향을 목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다만 이 같은 논의의 방향성은 외국의 문화클러스터 구축 결과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의 규모와 도시 간 이동 거리가 외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문화클러스터의 구축 방안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단일 도시가 아닌 도(道) 단위의 문화클러스터 구성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의 예산은 언제나 한정적이기 마련이다. 실제로 2015년에 집행된 전라북도의 문화관광 체육 예산은 전체 행정 예산의 3.67 %이다.<sup>5)</sup> 해당 예산은 다시 각 시도별로 특별한 연계성 없이 배분되는데, 이러한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 단위 안에서 각 도시별로 유기적인 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예산의 지역별 연계성은 효율적인 문화 관광 자원의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지자체들의 관광자원 개발은 해당 도시를 위주로 기획·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일회적이거나 한정된 기간에만 기능하게 된다는 단점을 갖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도시별로 개발되어 있는 문화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젠더의 확립 및 실행 정책의 수립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 산업 시장의 확대 문제이다. 문화클러스터의 구축을

4) 박세훈, 김은란, 「문화클러스터를 활용한 도시문화전략의 가능성과 한계」, 『국토연구』 77, 국토연구원, 2013, 243면.

5) 「전라북도 재정 세출 총괄표(조직별)」, 2015. 참조.

통해 연계되는 문화관광 콘텐츠들은 문화관광 산업 시장의 확대에 기여한다. 관련 지역의 문화 관광콘텐츠들을 하나의 컨셉으로 제공했을 때 연계 과정에서 생기는 효과는 기존의 개별 단위 콘텐츠들이 갖는 시장 가능성을 더욱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 있어서도 하부구조(6)들의 계획적 개발이 가능해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리적 요건과 더불어 문화적 가치사슬을 잘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시조문학을 바탕으로 한 관광클러스터의 경우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민들의 삶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표 1>과 같이 ‘시조’ 문화클러스터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을 정리해 보았다.

<표 1> ‘시조’ 문화클러스터의 필요조건 점검<sup>7)</sup>

결정 요소	필요조건과 요소 항목
요소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능력(교육기관 확보, 교육프로그램 제공, 관련기관 협력)</li> <li>▪ 환경조건(정보 제공, 시설 인프라 구축)</li> <li>▪ 지원제도(연구개발, 공동프로젝트 참여, 정주 환경 개선)</li> </ul>
수요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객 확보(교류 협력, 공동브랜드 개발, 인지도 확대)</li> <li>▪ 서비스 품질 유지관리(협회단체 가입 여부, 경쟁 체계 유지, 서비스 개량)</li> </ul>
연관/ 지원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업종 집적(관광자원 간 이동 루트 확보, 경쟁 체계)</li> <li>▪ 업무 지원 체계(비즈니스 활성화, 주체 간 협력 인프라 확보, 협의회 구성)</li> </ul>

- 6) 요식업, 숙박업, 일반소매업 등 문화관광 사업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하부 요소들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때 해당 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 7) 정건용, 「호남권 공예문화클러스터 조성방안 연구」, 『지역개발연구』 45, 지역개발연구원, 2013, 26면 참조를 바탕으로 재구성.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기반 반영 및 특화 전략 수립(전통콘텐츠 개발, 문화자원 활용 방안)</li> <li>▪ 비전 제시(사업에 대한 확신, 관련 업종 발전 가능성, 주민 의식 홍보)</li> </ul>
----	---

‘시조’ 문화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결정 요소에는 요소/수요/연관/지원/전략적 측면을 들 수 있다. 먼저 요소 조건의 경우 클러스터가 기본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인프라를 따져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민-관-산-학이 함께 협력하여 유기적인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때 그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학습 능력 조건에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군산대, 호원대 등 많은 종합대학들이 산재해 있으며, 그 외에도 전라북도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부설 연구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시조’ 문화클러스터의 원천소스가 문학임을 상기했을 때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익산 원광대의 경우 익산문화재단 가람기념사업회 등과 연계하여 앞으로 완공 예정인 가람문학관을 활용한 시조마을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주의 경우는 전북대, 전주대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정신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시조와 한지, 음식 등을 활용한 복합적 한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수요 조건의 경우를 보면 전라북도는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한 군산 근현대사 관광지 등 이미 유명한 관광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들 관광지들은 관광객들에게 전라북도 관광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관광지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는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연관/지원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나 전북관광문화재단 등의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가능할 경우, 연관/지원 분야에 있어 ‘시조’ 문화클러스터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전략과 관련해서 전라북도는 지역 전통 콘텐츠 개발과 문화적 자원의 활

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조와 관련하여 가람 이병기, 구름재 박병순, 이매창 등 시조시인들의 유·무형적 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인프라는 특정한 문학 장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지역 관광 개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전라북도는 문학적 콘텐츠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학의 마케팅과 문화콘텐츠는 그 장소에 합당한 장소성을 대상으로 인간의 감성, 곧 느낌을 자극하고, 느낌에 호소하여 가치를 확대하는데 주안한다. 장소가 갖는 원형은 장소가 대상으로 하는 문화콘텐츠 원형과 다를 바 없으며,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은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콘텐츠에 있어 멀티유즈의 창조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sup>8)</sup> 이 같은 측면에서 문학적 콘텐츠 자원과 관광 산업과의 컨버전스를 바탕으로 한 ‘시조문화클러스터’의 구축이 가능하다면, 전라북도 지역 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문향(文鄕)으로서의 지역성을 강조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3. 전라북도 지역의 ‘시조 문화클러스터’ 구축 방안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전북지역의 ‘시조 문화클러스터’를 구축했을 때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민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방문객들에게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하며, 셋째, 각종 연계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의 산업경제를 활성화<sup>9)</sup>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8) 이학주 외, 「장소마케팅에 따른 문화콘텐츠 콘셉트원형 발굴 시론」, 『국제어문』 61, 국제어문학회, 2014, 78면.

9) 김수복, 「윤석중 문학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 『한국문예창작』 22, 한국문예창작학회, 2011, 26면.

이러한 점에서 시조문학을 바탕으로 한 전라북도 ‘시조 문화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의 익산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 3.1. ‘시조 문화클러스터’ 거점 도시로서의 익산

먼저 익산시는 주변 도시들의 발달(논산, 전주, 군산, 부여, 부안, 진안) 등 특색 있는 주변 도시들과 인접하여 있어 접근성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가능성이 용이하다. 또한 익산 여수선 개통으로 전라도 지역 KTX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을 완료하고 시험운행 중인 서울 수서선 KTX 개통 시 서울의 강남 지역과 수도권의 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이점을 살린 가람생가와 가람문학관 관련 장소 마케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익산시에서도 가람 이병기 생가(전북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573-1)와 유적지, 고택/생가/정자, 기념물 등을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아올리보석테마 관광권역으로 연계 확대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생가 및 문학관의 장소성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해마다 익산문화재단이 가람기념사업회, 가람시조문학회, 여산면, 익산문인협회, 원광대학교(대안문화연구소, 인문학연구소), 익산문인협회와 함께하는 가람문학제를 개최하고, ‘가람 이병기’라는 차별화된 지역 문화브랜드의 대중화 및 거점화에 초점을 맞춰 상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람 이병기 전집 발간 사업은 문학적, 학문적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외에도 가람 이병기 학술 논문상, 가람시조교실 운영 등은 가람문학관 건립과 함께 ‘시조문화도시 익산’으로서의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중요한 콘텐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활동들은 문화클러스터의 구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민·관·학의 협력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

다는 점에서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매우 유리한 인프라이다.

문학에서 장소의 형성은 일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와 안정감은 유아기 시절부터 주위의 무차별적 공간을 장소화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간은 장소감의 연장으로 주위를 넘어선 곳에 있는 공간을 질서화 또는 기호화 한다. 가람의 문학을 장소 개념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소가 성립하기 위해 주위 세계에 속하는 사물들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sup>10)</sup> 지역 문화 관광에서 인물의 생존 장소는 인물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며 인물의 세계관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림 1] 가람 이병기 생가(전라북도 기념물 제6호)



[그림 1]은 가람 이병기(1891~1968) 생가이다. 조선 말기 선비의 가옥 배치를 따르고 있는데 현재는 안채, 사랑채, 헛간, 고방채, 정자 등이 남아 있다. 슬기를 감추고 겉으로 어리석은 체한다는 뜻을 간직한 ‘수우재(守遇齋)’라는 사랑채 이름에서 선대로부터 내려온 지조 있는 가문의 선비의식과 학자 문인으로 살아온 가람의 풍취가 느껴진다. 그러한 그의 정신은 다음 시조

10) 이경애, 「가람 이병기 문학 연구-해석학적 현상학의 관점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56-58면.

에도 배어나고 있다.

仁慈한 그 天性에 뛰어난 孝誠이오  
규모는 엄하시되 風度는 너그럽고  
至極한 艱苦를 겪고 새로 업을 이뤘다

눈을 파 못을 삼고 울 트고 뜰을 넓혀  
갖은 꽃나무 怪石을 옮겨 두고  
고요한 窓을 비기어 때로 내려 보시다

산도 들도 아닌 이 골 숨으신 東愚居士  
어리석을 愚字로 그 뜻을 감장하여  
이름을 愚石愚潭에 守遇齋라 하였다

— 이병기, 「守遇齋」 전문

앞의 시조는 가람 선대로부터 이어온 ‘守遇齋’를 당호로 정한 유래와 의미를 밝히고 있다. 앞으로 건축될 가람문학관의 공간 구성도 이 시조에 배어 있는 가람의 인간적, 자연적, 문학적 특성들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람문학관과 생가 ‘수우재’를 어떤 형식으로 연결시킬 것인지도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생가와 문학관 그리고 생가 주변에 백련 연못을 조성하여 문학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생가와 문학관과 백련생태공원과 폐교된 남초등학교를 잇는 둘레길 조성 등 가람시조 문학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보다 친화적면서도 문학적 정서를 교감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유럽이나 일본의 여러 문화도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화유산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코스나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상품 개발은 지역과 장소마케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익산시는 백제 문화권의 유물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관광루트들도 많이 개발된 상태이다. 이에 더해 가람문학관이 익산시 도시브랜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개발된 관광 루트들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익산시의 핵심 관광 자원 중 두 번째는 바로 ‘보석 펠리스’를 기반으로 한 보석 사업이다. 보석 박람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보석은 익산시를 대표하는 주력 관광 상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가람문학관은 이러한 보석 관광 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대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람 선생의 시조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미지들(난초, 매화, 백련, 함박꽃 등)을 모티프로 한 보석을 개발, 전시함으로써 가람문학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sup>11)</sup>

또한 주변의 왕궁리 유적(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562 세계문화유산 왕궁오층석탑 관광권역)과 익산 미륵사지(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04-1 미륵사지 관광권역)와 연계한 역사문화관광 코스를 개발함으로써 방문객의 만족도와 지역의 경제적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익산시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프라는 개별적으로는 익산 자체를, 넓게는 전라북도 전체를 아우르는 시조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3.2. 전주 양사재(養士齋)와 향교(鄕校), 한옥마을과의 연계

양사재(養士齋)는 가람 이병기가 1951년 전북대학교 초빙교수로 부임하면서 이곳으로 이사하여 1956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머물렀다. 원래 이곳 양사재는 향교의 부속 건물로 청소년들이 생원, 진사시 등의 공부를 하던 곳이었다. 그러다가 가람이 머물면서 후학들을 길러낸 공간으로, 지금은 전주시에서 지정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한옥체험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한옥 체험을 넘어서서 가람 이병기의 학문적, 문학적 업적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가람의 문학적 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음 시조는 가람이 자주 오르내렸을 ‘오목대’를 제재로 한 작품인데 현재의 한옥마을과 경기전(慶基殿)을 내려다보

11) 박영우, 「도시 브랜드로서의 가람문학관 활용 방안」, 『국어문화』 56, 국어문화학회, 2014. 279면.

면서 느꼈을 조선왕조 창업에 대한 가람의 심경과 감회가 술회되고 있다.

뒤에 五木臺를 나는 매양 오른다  
허술한 駐驛閣은 의로이 서 있으니  
櫛比한 몇 萬 家屋이 내려다 다 보인다

그 옆의 滋滿洞은 穆祖의 古蹟地요  
그 뒤의 鉢山은 이르노니 發李山  
과연 그 五百年 王氣가 여기 結因하였던가

— 이병기, 「五木臺」 전문

앞의 시조 첫째 수 초장 “뒤에 五木臺를 나는 매양 오른다”에 나타나는 것처럼 양사재 거주 시절 가람은 거의 매일 오목대를 올라 현재의 한옥마을과 경기전 쪽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심경을 달래면서 시심을 키운 장소인 것 같다. 그런 점에 착안하여 경기전 쪽을 바라다보고 있는 가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함께 가람의 시조에 나타난 대표적인 이미지들을 표현하고 있는 「난초」, 「매화」, 「옥잠화」 같은 시조가 새겨진 시비를 조성하는 것도 오목대의 장소성을 살릴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또한 다음 작품은 1957년 양사재에 머무를 당시 가람이 그의 제자였던 박병순에게 써준 유묵이다.

봉<sup>12)</sup>마다 방긋방긋 구슬보다 영롱(玲瓏)하다  
넌 모르면 다 필 듯 벗들도 오라 하였다  
진실로 너로 하여서 떠날 길도 더뎠다

대체 복(福)이란 건 길고 짜를 뿐이다  
요(夭)니 수(壽)니 함도 이걸 일컬음인데  
짜르고 긴 그 동안을 우리들은 산다 한다

12) 『가람문선』에는 ‘봄마다’로 되어 있으나 [그림 2]의 친필 유묵이나 셋째 수 초장의 “오늘 아침에야 봉 하나이 벌어졌다”의 표현으로 볼 때 ‘봄마다’의 오자로 추정됨.

오늘 아침에야 봉 하나이 벌어졌다  
홀로 더불어 두어 잔을 마시고  
좀먹은 고서(古書)를 내어 상(床)머리에 펼쳤다

— 이병기, 「청매(青梅) 3」 전문

가람의 시조에서 난초와 함께 대표적인 시적 대상이었던 청매를 제재로 한 연작 시조 중 한 편이다. 청매와 함께 하는 가람의 일상과 인생관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평소 가람의 단아하면서도 다사로운 인정이 숨결처럼 느껴지는 작품이다. 다음 시조는 박병순 시인이 1979년 전주를 떠나 서울로 이사하면서 가람이 머물렀던 양사재(養士齋)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경이 표현된 작품이다.

임은 가고 맘만이 남아 맴도나니 양사재를,  
이제 나도 뜨는데 마음인들 남을손가?  
참이니 순정이니 영원이란 믿을 수가 없구나.

그 얼마를 드나들던 정들었던 골목이며,  
이 얼마를 넘나들던 대문이며 문턱이던가?  
봄 와도 매화 향기 까마득한 빈 집 같은 양사재.

보고 다시 보고 눈 씻고 다시 봐도,  
골목 대문 서재 안방 예가 틀림없는데,  
현판도 갈려 유서도 가뭇없고 동정마저 달쿠나.

찰찰 넘치던 인정이며 감돌던 풍류는 어디 가고,  
이제 남은 건 깡마른 덩치와 메마른 땅덩이뿐,  
마지막 저무는 석양 속에 진정 옛일이 허튼쿠나.

— 박병순 「양사재(養士齋)」 전문<sup>13)</sup>

— 4312. 2. 19. 저녁때

— 전주를 떠나기 전날 양사재 골목길 위에서

— 1979. 5.5. 『현대문학』 제25권 제6(통권294)호 발표

13) 박병순, 『구름재 시조전집』, 도서출판 가꿈, 1993, 343면.

[그림 2] 양사재 가람선생 집필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교동)



앞의 작품에서는 가람 생전에 가람을 중심으로 많은 제자들이 모여 훈훈한 정과 풍류가 넘쳤던 시절을 회고하고 있다. 이제는 가람도 세상을 떠나고 시인조차도 스승 가람을 정성껏 모시고 배웠던 전주 양사재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심정이 절절히 배어나고 있다. 이 시조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양사재는 단순한 공간이 아닌 가람을 중심으로 한 전주의 많은 문인들과 후학들을 길러냈던 학문적, 문학적 공간으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이처럼 가람과 양사재(養士齋)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을 콘텐츠화하여 장소와의 관련성을 강조함으로써 방문객들의 문화적,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사재(養士齋)가 있었던 전주향교(全州鄉校)와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연결 짓는 일도 장소가 갖는 문화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전주향교는 650여 년의 역사의 굴곡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유학의 교리를 천명하여 충효와 예절의 인륜의 도를 선양하고, 고유문화를 전승하여 미풍양속을 면면히 이어 온 장소이다. 현재도 명륜당에 일요학교를 개설하여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을 상대로 윤리와 도덕, 한문 서예와 예절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훈장들을 상주시켜 서당을 통하여 일반인들의 전통 교육을 위한 학습장을 설치하고, 한문 교육을 통해 수강생들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수신(修身)하여 덕행을 함양토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 고유의 전통정악(傳統正樂)인 시조창을 교육함으로써 정신 건강과 정서 함양을 위한 시조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전한 혼인관 확립과 우리의 미풍양속인 전통의례를 발전시키기 위한 고유의 정취가 가득 담긴 전통 혼인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sup>14)</sup> 이러한 전주향교의 다양한 전통 교육 및 행사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양사재와 더불어 향교와 한옥마을의 장소성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익산과 전주를 이어 우리 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관광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라북도 문화클러스터의 핵심 벨트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 3.3. 진안 구름재 박병순 생가와 지역 관광과의 연계

가람 이병기의 제자인 박병순(1917~2008)<sup>15)</sup>은 전라북도 진안군을 대표하는 시조시인이자 한글학자이다. 그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조가 민족문학으로서의 전통성을 확보하는 데 혼신을 다해 노력하였다. 가람 선생의 시조는 격조(格調)로서 한국문학사의 금자탑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면 구름재 선생의 시조는 한국문학사의 신조(新調)라고 할 수 있다. 구름재는 가람에 이어서 근대문학사에 시조의 가치와 의미를 대중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시조 부흥에 정념을 쏟았던 주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sup>16)</sup> 박병순은 스승 김

14) 전주향교 홈페이지 <http://www.jjhyanggyo.or.kr>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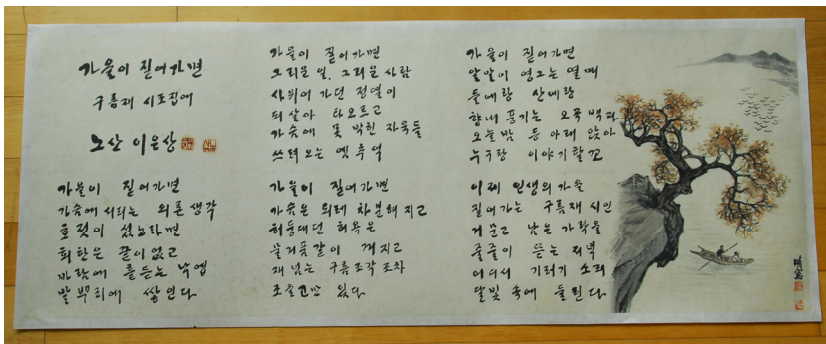
15) 박병순, 『구름재 시조전집』, 가꿈, 1993. 박병순(朴炳淳, 아호 구름재)은 1917년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출생. 2008년 92세로 별세. 1933년 진안공립보통학교, 1939년 대구사범학교 심상과, 1954년 전북대학교 문리대학 국문학과 1회 졸업, 1956년 동대학원 국문학과 졸업, 1938년 『동광신문』에 시 「생명이 끊이기 전에」와 조선일보 학생문예란에 수필 「청어장수」로 작품 활동 시작, 1952~1960년. 최초의 시조 전문지 『신조』 5집까지 발간, 1954년 사회집 『새벽』을 발간, 1958년 『현대문학』에 『김만경』, 『생명』, 『철창일기』 등 발표. 시조집 『낙수첩』, 『별빛처럼』, 『문을 바르기 전에』, 『새는 새맘으로 세상을 보자』, 『구름재 시조전집』, 『가을이 짙어 가면』, 『한국시조 큰사전』, 『진달래, 낙조처럼』, 『해돋이 해넘이의 노래』, 『구름재 시조전집』, 『행복한 날』, 『먼길 바라기』 등 12권이 있다.

16) 권성훈, 「구름재 저편에서 들리는 가람의 노래」, 『시조시학』, 2012. 봄호, 248면. \_\_\_\_\_, 「박병순 시조의 스승 모티프 전개와 의미」, 『비교문학』, 한국비교문학

해강을 통해 처음 시조를 접했으며 이후 스승 가람에게서 본격적으로 시조를 배웠다. 일제강점기 대구사범학교에 시절 ‘시조집’을 몰래 배포하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8·15 해방 후부터 스승인 가람 이병기와 함께 시조 부흥을 위해 힘썼다. 또한 최승범 최진성 장순하 등과 ‘새벽 동인’을 조직하였고, 신석정, 백양춘, 장순하, 최승범 등과 ‘가람동인회’로 활동하면서 시조시인으로서 한국 시조문학사에 큰 영향을 주었다.

박병순 시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1,100여 편의 시조와 신문, 문예지, 회지, 교지 등의 발표한 육필 원고, 시서화, 문인화와 일기를 비롯한 문인, 정계, 학계, 예술인 등과의 교류한 편지와 수필, 그리고 고서적 등의 유품을 남겼다. 이는 박병순이 살았던 당대의 역사적, 문화적, 문학적, 교육적 자산을 담은 중요한 유형의 가치를 지닌 현존하는 자료들이다. 이러한 유고 자료들을 구름재 생가 복원을 계기로 보존·전시·관리함으로써 그의 업적을 전승해야 할 필요가 있다.”<sup>17)</sup>고 판단된다. 이런 사실과 평가들을 토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름재 박병순 생가 복원 사업은 진안 지역을 문화 자원의 요충지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3] 노산 이은상 서화



회, 58, 2012, 108면  
 17) 권성훈, 「시조 시인의 생가와 시조문학관 연구」, 『비평문학』 52, 한국비평문학회, 2014, 44면.

위의 [그림 3]은 노산 이은상이 구름재 시조집 출간을 축하하기 위해 그려준 서화이다. 이 외에도 가람의 난초와 유묵, 국문학자 정인승의 유묵 등 많은 문화유산을 남기고 있다. 이를 보존·전시·관리하고 문화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매년 열리는 3월 진안 운장산 고로쇠 축제, 4월 진안 홍삼축제, 10월 마이산 문화제 등에 구름재 박병순 생가를 명소로 지정하여 진안 8경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테마별 코스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안군은 2015년에 진안문인협회와 공동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름재 박병순 시조 낭송 대회’를 개최하여 진안군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지속적인 연례행사로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진안군은 ‘모래재 옛길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다’라는 테마로 모래재 도로 5km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로 조성하여 드라마, 영화 촬영 등의 배경이 되게 하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드라이브 길’을 이용한 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안 모래재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전주~진안 간 옛 국도인 모래재길을 지나 위치하고 있는데, 지난 1987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해 현 부귀 검문소에서 모래재 터널에 이르는 5.5km 구간에 은행목 228주, 당단풍 204주, 메타세쿼이아 236주 등 총 700여 주가 식재되어 있다. 20여 년이 흐르면서 아래 [그림 4]와 같은 울창한 숲이 도로변에 형성돼 KBS 드라마 ‘내 딸 서영이’, ‘아우디코리아’ 광고에 까지 담기는 등 전국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명소이다.

모래재는 진안 초입에 위치하여 구름재 박병순의 생가로 향하고 있는데,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 코스를 ‘모래재’에서 ‘구름재’ 생가로 이어지는 드라이브 코스로 활용한다면 진안의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 박병순 생가도 문화자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진안 모래재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또한 모래재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에서 20분 정도 진안읍 쪽으로 향하다 보면 전라북도 도립공원인 마이산이 위치해 있다. 마이산 도립공원(전북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255)은 진안읍내 어느 방향에서나 눈에 띄는 산으로 봄에는 안개를 뚫고 나온 두 봉우리가 쌍돛배 같다 하여 돛대봉, 여름에 수목이 울창해지면 용의 빨처럼 보인다고 용각봉, 가을에는 단풍 든 모습이 말의 귀 같다 해서 마이봉, 겨울에는 눈이 쌓이지 않아 먹물을 찍은 붓끝처럼 보여 문필봉이라는 네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

조선시대 태조와 관련된 전설에서 유래되어 ‘속금산(束金山)’으로도 불리기도 하는 고향 마이산과 관련된 시조가 박병순 시인에 의해 여러 편 창작되었는데 그 중 한 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득한 옛날 저 속속금산은 한밤중에 크자 했다.  
암속금산은 새벽에 크자고 했다.  
산 산도 아내를 사랑하여 새벽녘에 크자고 했다.

물동이를 이고 나온 아낙네가 외치는 소리

“아! 산이 크네, 아아! 저 산이 크네”  
하늘에 닿을 듯 솟아올랐던 자용은 주저앉았다.

숫속금산은 분노에 넘쳐 두 아들을 빼앗고,  
암속금산을 발로 차 버린 차 버린 뒤,  
몇 겁이 흘러도 공방 든 채로 그만 굳어 버렸다.

구름도 시름 되어 저 봉을 스치는가!  
구구구 산비둘기 짝을 불러 서로 나네.  
사무친 그 한을 풀게 다시 솟아올라라.

— 박병순, 「속금산(馬耳山)1. 전설」 전문<sup>18)</sup>

앞의 시조에서처럼 마이산과 관련된 전설이나 설화 모티프를 활용한 콘텐츠의 개발도 장소가 갖는 고유성과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마이산 전설을 스토리텔링화하여 진안군 고유의 문화상품이나 캐릭터 개발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에도 마이산의 이미지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업성 있는 매력적인 상품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목공예품이나 도자기 등 식상한 소재보다는 장신구나 액세서리, 휴대폰 케이스 등 보다 세련되고 실용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림 5] 마이산 전라북도 도립공원



18) 박병순, 『구름개 시조전집』, 도서출판 가꿈, 1993, 122면.

최근 진안군은 전라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1시군 1관광지 육성과 연계 마이산을 대표 관광지로 선정하고 2024년까지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투자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마이산 관광단지에는 진안군의 특산품인 홍삼을 테마로 한 홍삼스파호텔과 토속음식점 등을 새롭게 단장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단순한 요식업소나 유흥숙박시설의 공간 배치만으로는 그 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가 깃든 문화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때, 단순히 서너 시간 머무는 장소가 아닌 관광객의 문화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힐링 공간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 3.4. 부안의 매창공원과 내변산 관광자원의 연계

이매창은 조선 중기의 기생이자 여류시인이다. 그의 묘는 1983년 8월 24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매년 음력 4월 5일 부안의 율객(律客)모임인 부풍율회(扶風律會)에서 매창을 기념하는 매창제(梅窓祭)를 지내고 있다. 매창(梅窓)은 조선 선조 6년(1573) 부안현리인 이양종의 서녀로 태어났다. 이름은 계화, 계생, 향금 등으로 불렸고, 자는 천향(天香), 호(號)는 매창(梅窓)이라 하였다. 광해군 2년(1610)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시와 가무에 뛰어나 개성의 황진이와 더불어 조선 명기의 쌍벽을 이루었다. 매창이 남긴 시(詩)중 현재 전하는 것은 61수이다. 아버지에게 한문을 배웠으며 시와 글씨가 뛰어나 조선 여류 시인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또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이나 유희경 등의 시인과도 가까웠던 사이로 전해진다. 이매창은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를 남겼으나 거의 없어지고 광해군 2년(1610) 여름 세상을 떠나자 거문고와 함께 묻혔으며, 그녀의 대표적인 시조 “이화우(梨花雨) 흘날릴 제는”는 시조집 『가곡원류』에 실려 전해지고 있다. 1668년에 부안의 아전들이 외워 전하던 58편을 얻어 개암사에서 목판으로 『매창집』을 만들었다. 부안읍 봉덕리에 위치한 이매창의 묘(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567)는 전라북도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되었다.<sup>19)</sup>

앞의 설명에서 보듯 이매창이라는 인물의 이미지는 송도하면 황진이를 연상하듯 부안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 매력적인 이미지는 사랑하는 정인과의 애틋한 이별과 기다림의 정서를 노래한 다음 시조 한 편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림 6] 이매창 시비



이화우(梨花雨) 흘날릴 제 울며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더라.

이 시조를 보고 가람 이병기는 다음과 같은 매창에 관한 시조를 썼다.

돌비는 날어지고 금잔디 새로워라  
덧없이 비와 바람 오고 가고 하지만은  
한 줌의 향기로운 이 흙 헐리지를 앓는다

이화우(梨花雨) 부르다가 거문고 비껴두고

19) 부안군청 홈페이지 <http://www.buan.go.kr> 2016

등 아래 홀로 앉아 그 누구를 생각하는지  
두 뺨에 젖은 눈물이 흐르는 듯 하구나

나삼(羅衫)을 손에 잡혀 몇 번이나 찢겼으리  
그리는 운우(雲雨)도 스러진 꿈이 되고  
그 고운 글발 그대로 정은 살아 남았다.

— 이병기, 「매창뜸」 전문

매창에 대해 쓴 가람의 이 시조에서 조선이라는 한 시대를 품기했던 하지만 서녀이고 기녀라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질곡의 세월을 살다간 매창에 대한 시적화자의 안타까움이 절절히 배어나오고 있다. 이는 물론 가람이 생각하는 현재화된 매창에 대한 애뜻한 안타까움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sup>20)</sup> 이처럼 이매창의 시조 한 편이 조선시대라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또한 매창이라는 이미지와 캐릭터는 그녀의 고향인 부안을 연상시키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7] 매창공원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567-3)



20) 박영우, 「가람 이병기 문화 공간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예창작』 23, 2011, 한국문예창작학회, 101면.

[그림 7]에서 보듯 이매창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한 매창공원은 지방기념물 65호로 지정되어 있다. 매창의 시비와 더불어 그녀의 정인이었던 유희경의 시, 매창의 죽음을 슬퍼하며 쓴 허균의 시, 그리고 「매창 무덤 앞에서」라는 제목을 단 송수권 시인의 시비 등이 서 있다.

이렇듯 당대와 후대의 많은 문인들이 매창을 사랑하고 노래하고 추모했던 매창공원과 더불어, 부안향교(전북 부안군 부안을 서외리 266)와, 매창의 시를 목판으로 만들었던 개암사(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전나무길로 유명한 내소사 등을 연계한 시조 테마 문화관광코스의 개발은 부안군을 대표하는 새로운 지역마케팅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매창과 관련한 콘텐츠의 경우, 전라북도에 널리 퍼져있는 시조문학이라는 핵심 가치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진안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으로의 접근성 확보 실패로 인해 그동안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전라북도 '시조 문화클러스터'의 구축이 가능해진다면 시조와 지역, 인물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관광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전라북도 지역의 문화관광 사업 또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4. 광역적 '시조 문화클러스터'의 실현 방안

이상 앞 장에서 익산과 전주를 중심으로 한 가람 이병기, 진안을 중심으로 한 구름재 박병순, 부안을 중심으로 한 이매창과 관련한 세부적 시조 클러스터 구축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제는 어떻게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네 개의 지역을 하나의 시조문화 관광벨트로 연결시켜 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느냐에 있다 할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활용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서울 수서 KTX역-익산-진안-전주-부안을 연결하는 관광루트의 개발이다. 현재 서울 강남의 수서 KTX역과 수서선이 완공되어 올해 12월 개

통을 앞두고 있다. 강남권에 KTX역이 생긴다는 것은 강남권의 관광 수요를 전라북도로 유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진다. 익산역을 거점으로 가람생가와 가람문학관 → 익산 보석팰리스 단지 → 진안 구름재 박병순 생가와 마이산 → 전주 한옥마을과 양사재, 오목대, 다가공원, 전북대(전주 1박) → 부안 매창공원과 개암사, 내소사 → 익산역 또는 제 2코스로 가람생가와 가람문학관 → 익산 보석팰리스 단지 → 부안 매창공원과 개암사, 내소사(부안 1박) → 전주 한옥마을과 양사재, 오목대, 다가공원, 전북대 → 진안 구름재 박병순 생가와 마이산 → 익산역을 순환하는 연계 셔틀버스의 운행 등을 통해 1박 2일 코스의 시조 관광 권역 패키지 상품 개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간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협력적 발전 관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익산의 경우 시조도시 인프라 구성을 위한 시조 관광권 조성을 위해 시조마을 특화사업 및 관광 테마 구축, ‘가람로’ 추진 및 올레길 정비, 난초공원 추진 등 부가사업 창출을 위한 도시 이미지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통합적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홍보 및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기존의 문학과 관련된 콘텐츠들은 모두 장소적 제약을 갖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한국의 문학콘텐츠 산업은 대체적으로 문학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외연 확장에 제약받을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시조 문화클러스터’ 사업은 기존의 단점들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가람 이병기와 관련된 행사들을 보면 해마다 익산문화재단이 가람기념사업회, 가람시조문학회, 여산면, 익산문인협회, 원광대학교(대안문화연구소, 인문학연구소), 익산문인협회와 함께하는 가람문학제를 중심으로, 가람 이병기 학술 논문상, 가람시조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진안의 경우는 마이산 축제 기간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구름재 박병순 시조시인 선양 시낭송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진안과 시조시인 구름재를 알리고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부안의 경우도 매창문화제와 마실 전국 어린이 동요제, 백일장 대회 등을 해마다 개최하여 매창을 활용한 지역적 문화적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다양한 행사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정보를 모두 담으면서 동시에 ‘시조’ 문화라는 테마를 수요자들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면, ‘시조 문화 클러스터’의 구축과 관련된 정보와 일정들을 한눈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익산과 전주, 진안, 부안 사이의 공간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림 8] 국내 관광 어플리케이션 두발로<sup>21)</sup>



위의 [그림 8]은 ‘두발로’라는 관광 어플리케이션으로 녹색여행을 테마로 하고 있다. 기존의 지역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테마 중심으로 관광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색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시조 문화 클러스터’를 위한 모바일 콘텐츠 역시 위와 같은 형태로 제작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발로의 경우 녹색여행이라는 테마의 특성상 콘텐츠가 적을 수밖에 없으나, 시조 문화의 경우 관련 행사와 더불어 각 문화제의 의미, 해당 작품의 수록 등 다양한 콘텐츠의 수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훨씬

21) 녹색여행을 테마로 제작된 ‘두발로’에는 테마에 맞는 여행과 관련 관광에 대한 지도 및 정보 등을 제공한다.

유용한 플랫폼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이용자가 앞에서 제시한 시조 관광 코스를 답사하고 싶은 경우, 열차 예매에서부터 셔틀버스, 관람, 쇼핑, 숙식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윈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학관이나 관련 유적지를 방문했을 때에도 단순한 관람에 그치지 않고 관람객이 충분히 작품과 인물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수준 및 기호에 따른 시조 제공 → 인상적인 작품 저장하기 → 좋은 시조 친구에게 보내기 또는 창작 배경 지도 검색 등을 통해 작품 속 시인이 즐겨 찾던 곳, 지역 명소 및 맛집 등을 소개하고 연결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통합적 스토리텔링을 통한 시조의 대중성 강화이다. 스토리텔링은 관광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지역과 관련된 대표적 인물상을 개발하는 것은 도시의 이미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셰익스피어의 도시인 영국의 스트라트포트 어펀 에이븐 (Stratford-upon-Avon) 시나 미우라 아야꼬의 「빙점(氷點)」의 도시 일본 호카이도의 아사히카와(旭川)시처럼 도시를 대표하는 인물상을 만들고, 관련된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강화시켜 도시의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익산시와 전주시는 『가람문선』과 『가람일기』 등 가람문학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익산의 경우는 백제문화권 등과의 연계성을 통한 장소성의 확장과 더불어 전주시의 경우는 많은 후학들을 길러낸 양사재 한옥마을 중심으로 한 문인들의 이야기와 관련된 장소의 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은 현재 편찬중인 『가람전집』이 발간되면 전주 향교나 양사재, 오목대 등에서 ‘가람 시조 낭송 모임’ 등을 통한 문학적 저변 확대를 꾀하는 것도 하나의 실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람과의 인연이 있는 원로시인이나 관련 인사 등을 정기적으로 초대하여 가람과 얽힌 일화를 듣고 새로운 스토리로 재구성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특히 가람이 특히 평소 좋아하던 호산춘주를 파는 주점 등을 열어보는 것도 자연

스럽게 관람객과 동호인들을 모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병순의 경우는 고향을 소재로 한 진안의 정취가 담겨있는 작품이 많은데, 특히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와 관련이 있는 ‘마이산’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작품 속 마이산과 관련한 설화들을 스토리텔링의 주요 모티프로 삼아 마이산 관광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안의 이매창은 황진이와 더불어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매력적인 인물이다. 조선 중기 당대의 문사였던 유희경, 허균, 이귀 등과 관련된 이야기와 작품들이 많은데 이를 독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새로운 스토리를 개발하고, 도서 출판은 물론 부안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웹툰 개발 등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 연계한다면 커다란 관광객 유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의 스토리를 한데 모으고 관리·운영하는 주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컨대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등이 주체가 되어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운영해 보는 것도 하나의 실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작품 속 이미지와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들 수 있다. 작품 속 대표적인 이미지들을 찾아보면 가람의 경우 매화, 난초, 백련, 함박꽃 등을 들 수 있고, 박병순의 경우는 구름, 무궁화, 마이산, 초가집 등을, 그리고 이매창의 경우는 그의 대표적인 시조 “이화우(梨花雨) 흠날릴 제 울며잡고 이별한 님”에서 나오는 ‘배꽃’이나 매창의 인물 캐릭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들을 익산 보석단지의 세공기술, 전주 한지공예 등과 연계해서 관광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역의 경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문화적·경제적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5. 맺음말

이상으로 시조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지역 ‘시조

문화클러스터' 구축을 중심으로 한 활용 방안을 탐구해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건립될 가람문학관 익산을 중심으로 가람 선생이 머물렀던 전주 한옥마을과 양사재(養士齋), 진안의 구름재 박병순 생가와 마이산, 그리고 조선시대 명기(名妓)로서 절창 시조를 남긴 부안의 이매창 관련 유적지들을 연계한 전라북도 지역의 시조문학 자원을 아우를 수 있는 '시조' 문화클러스터 구축 가능성 및 장소마케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라북도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학적 자산을 시조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하나의 테마로 묶어 시조문학을 바탕으로 하는 '시조' 문화클러스터의 구축은 단순히 문화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전통적 가치와 의미를 재확인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전북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지역적 문화 자산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지역 경제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유산을 창출하기 위해 이호석 생가 터 약 1만 8,000㎡의 부지에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이호석 생가 터에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호석예술촌'을 조성하고 있다. 이미 현재에도 평창은 이호석 마케팅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 이미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효과를 얻고 있다.

그곳에 비하면 전라북도는 상대적으로 훨씬 다양하고 우수한 문학적 자산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익산시의 가람문학관 개관을 계기로 하여 익산 - 진안 - 전주 - 부안을 연결하는 시조문학을 중심으로 한 '시조 문화클러스터'의 구축은 지역 장소마케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개발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럼으로써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시조문학의 자산이 새로운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및 논문

- 권성훈, 「구름재 저편에서 들리는 가람의 노래」, 『시조시학』, 2012. 봄호, 248면.
- \_\_\_\_\_, 「박병순 시조의 스승 모티프 전개와 의미」, 『비교문학』, 한국비교문학회, 58, 2012.
- \_\_\_\_\_, 「시조 시인의 생가와 시조 문학관 연구」, 『비평문학』 52, 한국비평문학회, 2014.
- 김수복, 「윤석중 문학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 『한국문예창작』 22, 한국문예창작학회, 2011.
- 박병순, 『구름재 시조전집』, 도서출판 가꿈, 1993.
- 박영우, 「가람 이병기 문화 공간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예창작』 2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1.
- \_\_\_\_\_, 「도시 브랜드로서의 가람문학관 활용 방안」, 『국어문학』 56, 국어문학회, 2014.
- 안승범·최혜실, 「공간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테마파크 기획 연구」, 『인문콘텐츠』 17, 인문콘텐츠학회, 2010.
- 이경애, 『가람 이병기 문학 연구-해석학적 현상학의 관점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 이병기, 『가람문선』, 신구문화사, 1966.
- 이학주 외, 「장소마케팅에 따른 문화콘텐츠 콘셉트원형 발굴 시론」, 『국제어문』 61, 국제어문학회, 2014.
- 정경운, 「한국문학콘텐츠의 활성화 방안 연구 — 국내 문학관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 이론 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5, 2005.
- 조광익, 「여가와 관광의 철학적 의미」, 『관광학총론』, 백산출판사, 2009.

## 2. 기타

부안군청 홈페이지 <http://www.buan.go.kr> 2016.

익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iksan.go.kr> 2016.

전주향교 홈페이지 <http://www.jjhyanggyo.or.kr> 2016.

진안군청 홈페이지 <http://www.jinan.go.kr> 2016.

【Abstracts】

## Methods of Utilizing Sijo as Culture Contents

- Focused on 'Sijo Cultural cluster' of Jeonbuk Province -

Park Young-woo

Iksan City is pushing a project aimed at completing the construction of the Garam Literary House in 2017. Jinan-gun is also propelling the restoration of a sijo poet Gureumjae, Park Byeong Soon's birthplace, who was Garam Lee Byeong Gi's disciple. A series of projects implemented around the same time aim at inspiring the cultural pride of Jeollabuk-do as the mecca of sijo literature, which was led by Garam. Now it is the time to push through the possible research and practice as part of producing new cultural contents and developing place marketing through cross-regional linkages.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urse for a regional theme tour, course linking historic sites such as: Garam literary house expected to be built in Iksan; Jeonju Hanok Village; and Yangsajae, where Garam lived; Gureumjae - Park Byeong Soon's birthplace; and Mt. Mai in Jinan; as well as places in Buan related with Lee Mae Chang, a famous gisaeng from the Choseon Dynasty, who handed down excellent pieces of sijo.

It is also a high time to approach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s converging on tourism by utilizing the culture protocol.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give an opportunity to vitalize Jeollabuk-do's place marketing

through *sijo*.

Key words : *sijo*, culture contents, cultural cluster, Jeollabuk-do, place marketing, Iksan City, Jeonju City, Jinan-gun, Buan-gun.

이 논문은 2016년 10월 14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11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11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